

8연승 KIA, 뜨거운 방망이로 3위 노린다

T 타이거즈 전망대

‘호랑이 군단’의 뜨거운 방망이가 3위를 노린다.

8연승에 성공한 KIA 타이거즈가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를 상대로 연승 잇기에 나선다. KIA는 주중 잠실에서 두산과 원정경기를 치른 뒤 광주로 돌아와 LG를 만난다.

가장 뜨거운 팀이지만 쉽지 않은 한 주가 기다리고 있다.

순위에서는 KIA가 4위에 자리하면서 6위 두산에 앞섰다. 2.5경기 차 앞에 KIA가 있지만 상대전적에서는 두산이 우위다. KIA는 올 시즌 두산과 10번 만나서 3승 밖에 수확하지 못했다.

주말에 만나는 LG는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대. 앞선 맞대결에서 두 팀은 5승 5패로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선발 고민 속에서 9일 더블헤더 포함 주말에 4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게 부담이다.

쉽지 않은 상대들과 7연전을 치러야 하는 만큼 부상으로 산체스가 빠진 마운드에 비상이 걸렸다.

KIA는 지난 주 비로 두 경기를 쉬면서 대체 선발 없이 경기를 풀어야 할 수 있었다. 이번 주는 7연전 일정이 기다리는 만큼 선발 운영에 고민이 많다.

불펜진의 부담도 많은 한주. 선발진의 ‘이닝’이 성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KIA의 화력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KIA는 비로 두 경기를 쉬었던 지난 주 4경기에서 43점을 뽑아내는 막강 화력을 과시했다. 4경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하면서 팀 타율은 무려 0.355를 찍었다. 여기에 나성범이 3개의 홈런

주중 잠실서 두산 원정경기 주말엔 광주서 LG와 4연전 쉽지 않는 7연전 마운드 비상 타자들 화력쇼에 큰 기대

을 기록하는 등 KIA는 지난 주 가장 많은 9개의 팀 홈런을 만들었다.

홈런도 고르게 나왔다. 소크라테스, 박찬호, 한준수, 오선우, 황대인, 김도영이 홈런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면서 3위 SSG를 1.5경기 차까지 추격했다.

마운드 고민이 많은 한 주, 타자들이 화력으로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한다.

타격의 사이클이 있는 만큼 세밀한 전력 배치가 필요하다. 엔트리가 확대되면서 선수단 운영의 폭이 늘었다. 상대와 컨디션에 맞춰 적재적소에 타자들을 투입하면서 타격 페이스를 유지해야 한다.

페이스 유지를 위한 ‘체력 관리’도 이번 주 키워드 중 하나다.

KIA의 8연승 주역은 톱타자 박찬호다. 박찬호는 재지있는 플레이로 난적을 공략하면서 승리를 이었다. 상황에 맞춰 부지런히 달리면서 득점력도 높였고, 좋은 수비로 실점은 막고 있다. 공-수-주에서 맹활약하고 있지만 톱타자와 유격수라는 체력부담 많은 자리에서 동시에 역할을 하고 있다.

7연전 일정까지 준비된 만큼 박찬호 등 연승 기간 부담이 많았던 야수진의 체력을 관리하면서 순위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황대인

가장 눈길이 쏠리는 자리는 1루다.

최원준이 외야로 이동을 하면서 변우혁, 황대인, 오선우의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변우혁이 31일 NC전에서 3안타를 기록했고, 오선우와 황대인은 홈런으로 힘을 보여줬다.

오선우는 2일 SSG전에서 대타로 시즌 첫 타석을

맞았다. 2021년 6월 29일 이후 2년 여만에 맞이한 1군 타석이기도 했던 9회 무사 1-2루에서 오선우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3점포를 날리면서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밀어서 담장을 넘기면서 파워를 보여준 오선우, 황대인도 홈런으로 파워를 보여줬다.

황대인은 3일 SSG전에서 1루수로 선발 출장해

2회 첫 타석에서 투런포를 장식했고, 8회에는 서진용을 상대로 안타를 만들면서 역전극의 한 축이 됐다.

힘으로는 팀에서 지지 않는 세 선수의 힘 겨루기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버햄프턴 황희찬 리그 2호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올버햄프턴 황희찬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3~2024시즌 EPL 4라운드 경기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리그 2호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황희찬은 후반 20분 헤딩 슈팅으로 동점 골을 터뜨렸으나 팀은 팰리스에 2-3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광주여대 오예진, 정몽구배 한국양궁 동메달

3~4위 결정전서 6-4 승

광주여대 오예진이 국내 최고 권위 양궁 대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3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예진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개인전 3~4위전에서 임두나(LH)를 6-4(29-26 29-29 29-30 30-28 29-29)로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예선 4위(680점)로 본선 토너먼트에 오른 오예진은 64강 안서윤(한국체대·6-0 승), 32강 황재민(창원시청·6-4 승), 16강 이기영(광주시청·7-1 승), 8강 강재영(현대모비스·7-1 승)을 연파하

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오예진은 준결승서 현대백화점 정다소미를 만나 선전을 펼쳤으나 3-7(28-27 28-26 26-27 29-27-30)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3-4위전에서 임두나와 접전 끝에 승리,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정다소미는 결승서 유수정(현대백화점)을 7-3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2023 항저우아시아안계임에 출전하는 최미선(광주은행)과 안산(광주여대)은 각각 64강전과 16강전서 상대에게 덜미를 잡혔다.

‘엄마 공사’ 기보배(광주시청)는 8강전서 임두나에게 3-7로 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예진

KIA 나성범·박찬호, KBO리그 8월 MVP 도전

나성범, 타율 0.376에 5홈런
박찬호, 타율 0.382에 호수비

뜨거운 여름을 보낸 KIA 타이거즈의 나성범과 박찬호가 KBO리그 8월 MVP 후보가 됐다.

KBO가 4일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8월 월간 MVP 후보로 8명의 선수를 선정했다. 야수에서는 나성범, 박찬호와 함께 삼성 구자욱, 두산 김재호, 한화 노시환이 후보가 됐다. 투수에서는 KT 박영현과 쿠에바스, 롯데 윌커슨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성범은 KIA의 해결사였다.

나성범은 8월 22경기에서 85타수 32안타, 타율 0.376을 기록했고 11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5홈런(3위), 22타점(3위), 장타율 0.647(2위)을 찍으면서 주요 타격 지표 상위권에 자리했다.

박찬호는 KIA ‘핵타선’의 선봉장이었다.

박찬호는 89타수 34안타(공동 4위), 타율 0.382(5위)를 기록했다. 6차례 베이스를 훔쳐 도루 공동 5위인 박찬호는 0.466의 출루율(3위)을 바탕으로 22차례 홈에도 들어오는 등 득점 2위에 올랐다. 또 상대의 흐름을 끊는 호수비도 연달아 선보이면서 공-수-주에서 맹활약했다.

삼성 구자욱은 35안타(공동 2위)로 타율 0.412(2위)를 기록했고 10개의 2루타를 생산했다. 구자욱은 4개의 홈런(공동 4위)도 추가하며 장타율 1위(0.671), 출루율 2위(0.468)를 기록했다.

두산 김재호는 11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는 등 0.435의 타율로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출루율도 0.538로 가장 높았고, 득점 공동 4위(19득점)도 기록했다.

7월 MVP인 노시환은 8월 20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이 중 8개를 홈런으로 장식해 홈런과 타점(24점) 1위에 올랐다. 노시환은 8월 9일 수원 KT전에서 3개의 홈런을 날리는 등 장타율 5위(0.598)도 기록했다.

2년차 투수 KT 박영현은 15경기에서 나와 10홀드와 3세이브를 했다. 2일 수원 SSG전부터 16일 잠실 두산전까지 8경기 연속 자책점 없이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면서 8월 홀드 1위가 됐다.

‘돌아온 에이스’ 쿠에바스는 후반기 KT 질주의 중심이다. 8월에 나온 5경기에서 전부 QS+(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했으며 36이닝을 2자책점으로 막고 평균자책점 0.50(1위)을 찍었다. 탈삼진 37개(2위)도 추가했다.

지난 7월 KBO리그에 입성한 롯데 윌커슨은 8월 한 달 가장 많은 39개의 탈삼진을 뽑아냈고, 37.2이닝(공동 3위)을 투구하며 평균자책점 1.43(2위)을 기록했다.

한편 8월 월간 MVP는 8일까지 ‘신한SOL(솔)’에서 진행되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11일 발표된다.

최종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2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AI페퍼스, 존 그로스먼 코치 영입 수비 강화

광주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미국 국제 존 그로스먼(41·사진) 코치를 영입해 수비 조직력 강화에 나선다.

AI페퍼스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배구팀 자원 코치(Volunteer coach)로 활동한 존 그로스먼이 지난 2일 입국해 광주에서의 선수단 훈련에 합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 선임된 조 트린지 감독과 미국에서 인연을 맺은 존 그로스먼은 미국·캐나다에서 20년의 지도자 경력을 쌓아왔다.

그가 활동한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배구팀은 전미대학체육협회(NCAA)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냈다.

존 그로스먼은 통계 분석을 통해 선수의 성장을 끌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비기술 강화에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미국 서부지구 YMCA 청소년 배구팀 코치를 시작으로, 델라웨어육군사관학교, 아



카디아대학교, 코칭 교육단체 골드메달스퀘어드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캐나다 남자 배구 국가대표팀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AI페퍼스는 이로써 조 트린지 감독을 필두로 수석 코치 이경수, 박민범, 박성

수, 존 그로스먼 등으로 진용을 짰다. 존 그로스먼의 전임인 이성희 코치는 유소년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동연 AI페퍼스 단장은 “존 그로스먼은 뛰어난 코칭·분석역량과 더불어 풍부한 지도 경험에서 습득한 비법을 바탕으로 AI페퍼스의 수비 조직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